

## 미가서 강해 (2)

### - 애곡하는 예언자와 태평한 열두 성읍

미가 1:8-16; 마태복음 23:37-39

미가 선지자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주제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에 두고서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지은 이 죄를 지적해 내시고, 이 도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신 대로, 우상을 섬기던 사마리아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 우상을 다 훼파하실 뿐 아니라 음행의 값으로 모은 모든 것을 이 침략자들이 빼앗아 가서 그들 역시 음행하는 일에 그 재물들을 사용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미가 예언자는 그 일을 강 건너 불구경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예루살렘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1.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경고

##### 1) 미가 예언자의 애가

8 그러므로 내가 슬피 울고 애곡하며, 맨발에 벗은 채로 걸어 다닐 것이다.  
승냥이처럼 슬피 울고 타조처럼 애처롭게 울 것이다. 9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인 예루살렘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미가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 혹은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피 울고 애곡하였으며, 옷과 신발을 벗은 채로 걸어 다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걷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히 앗수르 제국은 포로들의 옷을 벗긴 채로 그들을 줄로 묶어 끌고 가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뿐 아니라 짐승처럼 묶여 끌려가는 포로들은 큰 소리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채찍을 맞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술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흐느끼는 울음은 마치 광야를 방황하는 승냥이나 타조의 울음소리와 같았습니다. 맘 놓고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는 그들은 사람의 소리라기보다 들판의 짐승 소리 같은 소리로 애처롭게 울면서 맨발과 벗은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언자 미가가 사마리아의 멸망을 놓고서 포로의 심정으로 이렇게 애통해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예언자가 단지 유다 지파로서의 소속감에만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애가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이 더 강대하였습니다. 또한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고, 형제 나라끼리 싸우면서 다른 나라를 그 싸움에 끌어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앓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아하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쉼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sup>20</sup>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주리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sup>21</sup>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사 9:19-21)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처럼 남조와 북조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잡아먹으려 하였습니다. 사실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반목하여 싸우는 것 자체가 여호와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여호와와 심판 아래 여전히 있을 것이었고, 이것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질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것 자체가 여호와와 심판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속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즉 자신들을 심판 아래 계속 두는 행위들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하스 때에 앓수르에 조공을 바쳐서라도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자들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서 좋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광야의 짐승처럼 슬피 울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들판에서 방황하는 승냥이나 타조처럼 자기도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심정이고, 자기 백성을 포로로 보내서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 2)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

그런데 미가 예언자의 애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장차 남유다에 임할 심판을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인 예루살렘까지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하여 여러 예언자들이 경고하였지만 듣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하여져서 아합 때에 이르면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들여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숭배는 이제 남유다까지 이르렀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거룩한 예언자의 눈으로 볼 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 큰 경고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상을 섬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치시는가를 보면서 남유다 백성은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상처’는 히브리어로 ‘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치셨고’ 그들은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낫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신 이 상처는 나을 가망이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그렇게 무섭게 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고 계신데도, 둔감하여진 남유다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치심에도 여러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면서 그 강도를 높여 가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시고, 또한 짐승이나 외적을 보내시는 방식으로 언약의 저주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돌이키면 그들이 유발한 상처, 하나님께서 치신 그 상처도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기어코 넘는다면 그들에게는 멸망 외에 다른 것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치심이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음에도, 즉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자신들의 죄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태평합니다.

예언자 미가의 심정은 ‘그 상처가(하나님의 치심이)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도 미쳤

다’ 하는 말에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므로, 만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훼파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점이 없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백성의 성문”이라는 이 말에 예언자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이 백성을 가리켜 ‘너희’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제외시킨 채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에, 그는 ‘내 백성’이라는 말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데서 그가 옷과 신발을 벗고서 슬피 울었던 행동의 의미도 잘 살아납니다. 그가 옷차림과 행동으로 보여 준 것도, 단지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유다 백성이 장차 포로로 잡혀갈 일까지 내다보면서 슬퍼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그 고통을 먼저 경험하면서 그 백성의 마음에 경고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예언자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분의 ‘보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언자도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자신의 심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예언에서 지혜를 얻어야 할 터인데, 남유다 백성은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이름을 가진 ‘미가’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 2. 태평한 열두 성읍

- 10 너희는 **가드**에 말하지 말고 절대 울지도 말라. **베트레아프랏**[먼지의 집]에서는 너희가 먼지 속에서 뒹굴어라.  
 11 **사뵐** 주민들아, 벗은 채로 부끄럽게 지나가라. **자아난** 주민은 나오지 않았다. **베트에셀**은 슬피 울고, 너희에게서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취하여 갈 것이다. [너희에게 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12 **미랏** 주민은 좋은 것을 고대하며 고통하였으나 실재는 여호와께서 내신 악이 **예루살렘** 성문에 내려왔을 뿐이다.

10-16절에는 열두 군테의 지명이 나오는데, 대체로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변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과 유다의 중앙 산지에 걸쳐 있는 평원인 이 지역은 ‘쉐팔라’라고도 불립니다. 주전 701년에 산헤립이 예루살렘만 남겨 놓고 남유다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였는데, 이 일이 미가서 1장 뒷부분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사야서 1장과 8장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원두막처럼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겨 놓고 다른 모든 지역은 앓수르 제국이라는 물에 잠긴 형국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 지역에 대한 예언을 읽어야 합니다.

“가드에 말하지 말라”는 표현은 다윗이 지은 ‘활의 노래’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삼하 1:20).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였던 다윗의 말을 가지고, 미가 예언자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블레셋에게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동일한 죄로 인해 멸망할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난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의 수치스러운 일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마음과도 통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열두 지명은 발음의 유사함이나 의미의 전이 등을 통하여서 청중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전해 주려는 의도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그 점이 희미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이중적인 의미 사용으로 인해 한 가지 의미로 고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나치게 호기심을 쫓아가지 않는 선에서 예언자가 사용한 언어유희를 따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한 어휘의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예언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의 심각함을 생각하고서 여러 표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드에 말하지 말고 절대 울지도 말라” 할 때에 ‘가드에’(버가드)라는 말은 원문에서 ‘울다’(바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즉, ‘버가드’에서는 ‘바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말로로는 ‘가드에서는 울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예언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백성에게 ‘절대 울지 말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비록 자신은 옷과 신발을 벗은 채 애곡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는 것보다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권고일 것입니다.

‘베트레아프랏’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예언자는 ‘너희가 먼지의 집에서 먼지 속

에서 뒹굴라'고 말합니다. 즉,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이 먼지처럼 되어 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니,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멸망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일을 가리켜 '죽어 마른 뼈만 남은 것'으로 비유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겔 37장).

'사빌'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사빌 주민들아, 벗은 채로 부끄럽게 지나가라' 하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에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있을 것을 강조하는 언어유희입니다. 그들은 아름답게 장식한 것을 모두 제하고 심지어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게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주민'(요세벳)이라는 말도 원어상 '수치'(보셋)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하던 사람은 모두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는 경고합니다.

이어서 '자아난 주민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구절에서도 '자아난'은 '나오다'를 의미하는 '야차'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읍에 재난이 임하면 사람들은 피난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난 사람은 성읍에서 나오지 못한 채로 그 재난을 모두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예셀'은 '도움의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자기의 서 있는 곳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마롯 주민은 좋은 것을 고대하며 고통하였다'고 할 때의 '마롯'은 '쓰다'는 뜻의 '마라'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좋은 것을 기대하며 고통을 참았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달리 악한 것, 쓴 것을 얻게 되었고 그 악은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13 **라기스** 주민들아, 준마에 병거를 매어라. 이것이 딸 시온에게는 죄의 시작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반역죄는 너에게서 드러났다.
- 14 따라서 너는 **모레셋** 갓에게 지참금을 주어라. **악십[아크집]**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속이는 것이 [아크자브] 되었다.
- 15 **마레사** 주민들아, 내가 정복자를 다시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다.
- 16 네가 기뻐하던 아들들 때문에 너는 머리를 깎아 대머리같이 하여라. 그 자녀들이 너를 떠나 포로로 갔으니 너는 독수리처럼 대머리를 만들어라.

13절부터는 군사적인 용어가 조금 더 현저합니다. 라기스의 주민에게 '준마'(레케쉬)를 병

거에 매라고 언어유희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딸 시온에게는 죄의 시작이 되었다’ 말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반역죄’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마땅한데(시 20:7), 그들은 그러지를 않고 말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은 마차 1,400승과 마병 12,000명을 마련하여 병거성에 주둔하도록 하였습니다(왕상 10:26). 솔로몬이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반역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언자는 ‘모레셋 갓’에 작별의 선물을 주라고 말하는데 ‘모레셋’은 ‘신부’를 뜻하는 ‘메오라사’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혼인식 신부에게 작별의 선물 곧 지참금을 주어 보내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역사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모레셋 갓을 앗수르에 조공으로 바치는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도성을 바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성읍을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마치 조공으로 바친 것같이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크집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속이는 것(아크자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에서 마치 속임을 당한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마레’는 ‘정복자’(모레쉬)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정복자가 와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처럼 반전되고,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라 말합니다. 아들람은 마레사 동쪽으로 약 11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조를 세우시며 시온 성을 건설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 성전도 짓게 하셨으나, 그들이 병거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간 결과 이제는 전에 아들람 굴로 피할 때와 같은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임하게 될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두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미가 예언자는 이제 16절에서 그 멸망의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뻐하던 아들들을 포로로 보내어 잃게 될 것이고, 따라서 큰 슬픔 가운데서 머리를 깎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도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가리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으로 묘사한 적이 있는데(겔 7:18),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기대하던 자녀를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시면, 결국 그 나라의 미래는 없어질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 자녀들이 너를 떠나 포로로 갔다’고 아예 과거의 일처럼 말씀하심으로써 이 일이 확정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이나 역사, 히브리어 표현의 언어유희 및 음성학적 유희를 다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1장의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할 수 있는 만큼만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자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분명하고 강렬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여호와와 심판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전주가 됨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의 자녀가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시는 데에서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가서 메시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를 노래하는 것으로 이 책이 끝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sup>19</sup>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sup>20</sup>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굽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7:18-20)

### 3. 예수님의 통곡과 예루살렘의 평안

우리가 미가서에서 배우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 즉 죄악의 사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죄를 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러한 엄위와 사랑에서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일에서도 그러한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sup>38</sup>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sup>39</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 23:37-39)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 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셨고, 또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기도 하시고(눅 19:41),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루살렘이 장차 황폐하여 버려질 것을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울면서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을 보시면서 우셨고, 또한 우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써 참된 구원을 이루셨고, 그렇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지’를 매우 명확하게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울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뵈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깨닫습니다. 성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삶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도 미가 예언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뜻을 다 전하되, 객관적인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내 백성의 성문인 교회’를 마음 깊이 두고서 사랑과 애통함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따라서 누가 약하면 자기의 약함으로 여기고 누가 징계를 받으면 마치 자신이 징계 받은 것처럼 여깁니다. 미가 예언자가 벗은 몸과 맨발로 슬피 울면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심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제는 언제나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를 노래하게 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송: 시편 86편